



1Q26 미국 태양광 설치량 발표 코멘트

US Solar Market Insight

신규 발전용량 내 비중 91%를 기록한 태양광 + ESS

비수기 1분기: 1Q26 미국 태양광 설치량은 총 7.8GW(-27% YoY)였으며, 섹터별로는 유틸리티 5.9GW(-34% YoY), 주택용 1.18GW(+6% YoY), 상업용 0.52GW(-4% YoY), 커뮤니티 0.25GW(-4% YoY)를 기록했다. 비수기 및 Section 25D 종료 영향으로 설치 절대량은 감소했으나, 미국 신규 발전용량 증가분 내 태양광+ESS 비중은 91%였다(태양광 60%, ESS 31%).

비수기에도 선방한 주택용: 주택용 설치량이 전년동기대비 증가한 이유는 Section 25D 종료로, 지난해 말 몰렸던 계통연결 물량이 1분기로 이연되었기 때문이다. 26년 주택용 시장은 대출 시장 축소로 역성장이 예상되나, Prepaid TPO 상품 덕분에 27년부터 성장세를 기록할 전망이다. 그리고 7월 이전 세이프하버 활동을 통해, TPO는 2030년까지 세액공제 자격 유지가 가능하다.

미국 태양광 주요 이슈 점검

200GW 이상의 세이프하버 물량 확보 추정: WoodMac은 미국 내 세이프하버 조건을 충족한 태양광 프로젝트는 216~240GWdc 수준으로 예상했다. 인허가 병목현상, 장비 조달 리드타임, 제한적인 수입 물량 등으로 모든 파이프라인이 설치되기는 어렵다. 하지만 일부 프로젝트의 탈락 가능성을 고려하더라도, 2030년까지 연간 40GW 이상의 설치량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

PFE(FEOC) 최종 가이드라인 발표 지연 가능성: 업계에서는 어떤 공장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결정하게 될 PFE 최종 가이드라인 발표가 지연될 수 있다고 예상한다. 아직은 Effective Control, JV 등 FEOC의 지분율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확정되지 않았기에 정책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애널리스트 코멘트

세이프하버로 막힌 하방 공급 부족으로 열린 상방

Non-China 태양광 기업들의 실적 가시성 강화: 200GW 세이프하버 물량으로 향후 4년간의 세액공제 가시성이 높아졌으며, 추가 중국 태양광 규제로 비중국 물량들의 가격 인상이 기대된다. OBBBA 법안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있으며, 1) 6~7월 내 Section 232 결과 발표, 2) 에티오피아 AD/CVD 제소, 3) 여전히 부족한 미국 내 제조 캐파 등으로 비중국 제품 경쟁력이 높아질 전망이다. 하반기에도 Non-China 태양광 업체들의 비중 확대가 필요하다.

그림 1. 연간 미국 섹터별 태양광 설치량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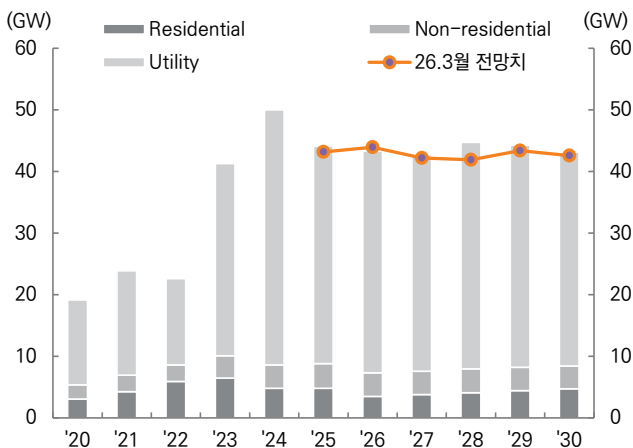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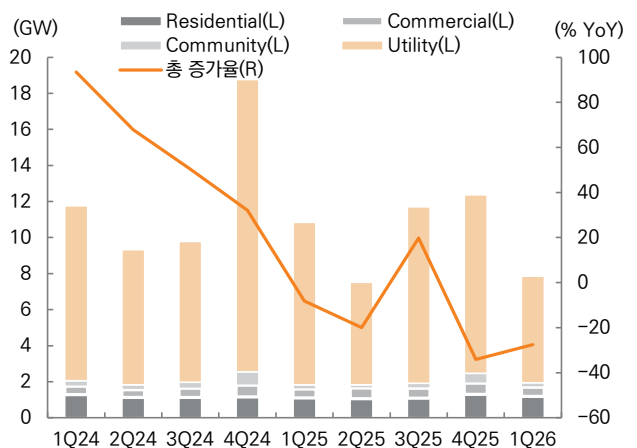


그림 2. 분기별 미국 섹터별 태양광 설치량 추이



자료: SEIA, Wood Mackenzie,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SEIA, Wood Mackenzie,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